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첫 삽' ... 전주시 직원 힘 합쳐 이뤄내

과거 논란에 우범기 시장 독심 '마침표'
옛 전주 재현... 명예 되찾는 전기 마련
9월 착공... 국제 행사 중심지로 도약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전시컨벤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첫삽을 뜨게 된 것은 무엇보다 설계자인 우범기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임정빈 조성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삼위 일체로 똘똘뭉쳐 이뤄낸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우범기시장

특히 종합경기장 사업문제로 김안주 시장과 송하진 시장, 김승수 시장 시절을 거치면서 20여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논란에 대해 우범기 시장의 독심이 마침표를 찍고 오는 9월 착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면서 과거 전주시 재현과 함께 명예를 되찾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1조30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경기장 일대 개발사업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국제 행사 중심지로서 도약은 물론 연면적 8만3000㎡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마이스)시설과 호텔, 백화점, 시립미술관, 청년 창업공간(지-타운)등 입주를 통해 침체된 전북도 및 전주시내 전체에 영향을 미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유치에 성공한 2036년 전북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정밀분석해 보면 우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부터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업무전반에 대해 진두지휘하면서 광역기반조성국 등의 직원들을 독려, 마침내 2025년 6월 교통영향평가 및 토건위원회 심의를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조성되는 MICE 복합단지 조감도

〈사진=전주시청 제공〉

끝으로 오는 9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착공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우 시장은 전주종합경기장을 대체할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드론스포츠복합센터 등을 하나로 집적 조성 중에 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종합개발사업이 9월초 착공될 경우 그동안 경기침체로 고전을 거듭하던 전주는 물론 도내 건설업계가 되살아나면서 인력창출 및 지역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을 지나는 상당수 전주 시민들은 확실히 종합경기장의 철거된 모습을 보면서 지난 60~70년대 전주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동희(60,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씨는 "종합경기장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철거공사로 확보된 공간이 마련돼 가슴이 뻥뚫린 기분이다"며 "전시컨벤션센터와 같은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전주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주시의 오랜 현안 숙제를 해결한 우범기시장과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우범기 시장은 "종합경기장이 철거된 만큼 이곳에 마이스 산업 중심의 복합단지를 개발해 전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전주를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오수환 순창군의회 의원, '지방의정부봉사상' 수상

순창군의회 오수환 의원이 최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연합회의(회장 남관우)로부터 지방의정부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부봉사상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오수환 의원은 제9대 순창군의회에 입성하여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오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수환 의원은 "이 상은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21회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대회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배드민턴협회(회장 심용현)가 주관하는 '제21회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지난 200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1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배드민턴협회에 가입된 약 120개 클럽에서 740팀 1,4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등급 및 연령대별로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각종목별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상근기자



남원 동충동, 나눔꽃집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차남, 조태봉)는 8월 1일 1가구 1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착한가게 기부에 동참한 관내 나눔꽃집(사업주 이경미)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을 정기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남원시 나눔꽃집 이경미 사업주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신관 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7명을 대상으로 3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 특히 폭염에 대비한 건강 수칙 안내와 함께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대상포진, 폐렴구균 예방접종, 노인 폭력 바우처카드 등) 안내 및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홍보와 각종 보조금 사업도 안내해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실천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고, 특히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대병원에 온누리안과 정영택 원장 발전기금 1억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온누리안과 정영택 원장이 병원 발전을 위해 발전후원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달식은 양종철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북대병원은 후원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증정했다.

전북대병원 발전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영택 원장은 "전북대병원이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민을 위한 더 나은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번 기부 외에도 다채로운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2001년 전북 지역 소방관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경찰관까지 확대해 지금까지 350명 이상의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무료 시력교정 수술을 제공했으며, 2006년도부터는 어린이 대상 무료 시력검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도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2025년 2월 전북희망나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지역복지운동, 자원봉사,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병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마음을 나눠주시는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 시니어안전모니터링단, 실전 체험형 교육

정읍시니어클럽이 시니어안전모니터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전 중심의 재난·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시니어안전모니터링사업단은 지난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62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북소방119안전체험관에서 전문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니어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화재 대피 요령, 재난종합대응 체험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 의식을 동시에 높일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화재 대피나 응급처치 같은 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 소감을 전했다.



탐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소방안전 체험 교육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여성농업인 진안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한국여성농업인 진안군연합회(회장 이효순)는 8일 진안 전문문화전시장에서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진안군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장, 노미성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과 회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여성농업인의 화합과 단결을 응원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효순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 연합회장 및 군수 표창 등 4부류, 14명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어울 한마당에서는 회원들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며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화장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인 100만원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탁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시 인후1동 지사협, 운동화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지호)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후동과 함께 걷는 한 걸음 운동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사업은 인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운동화 교환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중화산동 해바라기봉사단, 영양찰밥 나눔

전주시 중화산동(동장 최정미)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최영자)은 8일 관내 재언교회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찰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마련한 영양 찰밥과 밑반찬, 과일 등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및 인근 홀로어르신 80여명이 모시고 영양찰밥, 등을 대접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자원 활용서' 책자 배포

남원시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자원 활용서' 책자를 제작해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복지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 자원 활용서는 남원시 관내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복지지원 정보를 한데 모아 정리한 자료집으로, 각 기관 담당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복지 자원을 찾아 연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